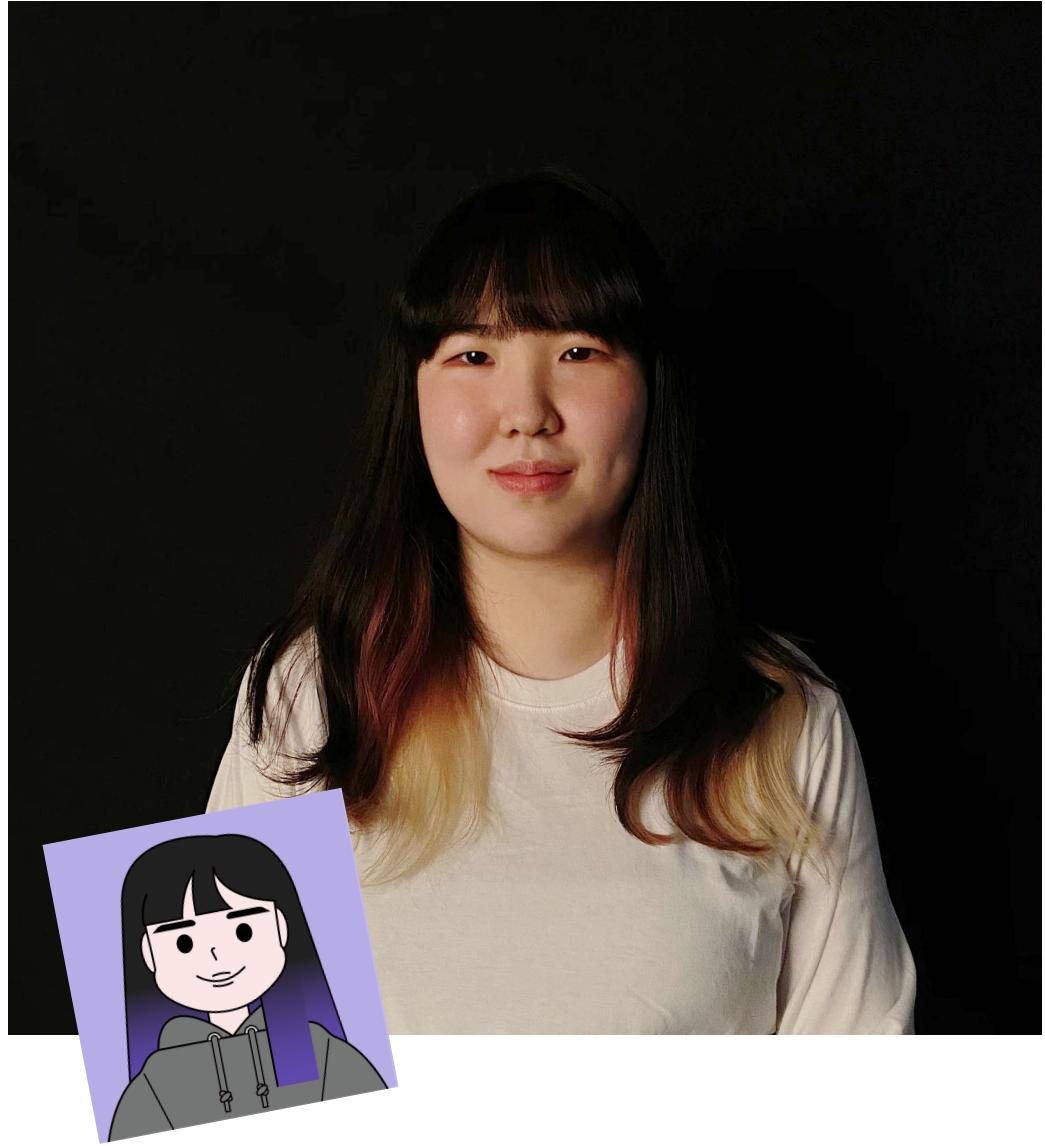


끊임없는 상상력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
‘화자 김지수’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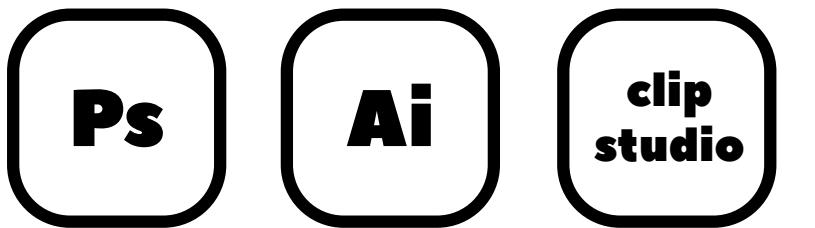


김지수 (Kim Ji Su)

1998년 09월 20일

일러스트레이터,
모션 그래픽 디자이너

보유능력



학력

대산고등학교 2017년 졸업

계원예술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
2021년 졸업예정

수상내역

환경부, 한국환경공단 개최 지구의 날 기념
그린캠퍼스 아이디어 공모전 특별상

??? 새로움을 찾는 힘, 호기심

호기심은 새로운 일에 대해 도전하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.

무슨 일이 되었든 관심이 가고 궁금해지면 그 상태로 머물러 있기보다는 그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보며 할 수 있다면 직접 체험했습니다. 특히 고등학교 때 시에서나 학교에서 주최하는 체험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. 처음 하더라도 여러 직업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. 이를 통해서 누구보다 많은 호기심으로 처음보는 것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 여러가지의 경험을 겪으면서 보다 넓은 시야와 새롭고 다양한 소재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도전적이며 새로운 소재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더 많은 도전으로 더 많은 새로움을 찾아내고 싶습니다.

새로움을 돋는 힘, 예민함

예민함은 다양한 감정들을 이해하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.

호기심으로 여러가지의 경험을 겪으며 처음 본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단순한 감정과 더불어 복잡한 감정들을 나누면서 좀 더 다양한 감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이 다양한 감정들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지점과 감정을 예민하게 집어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학교에서 팀 과제를 진행할 때 팀원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 원하는 작업물의 공통점을 더 만들며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의견을 잘 조율하려 노력했고, 보다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. 그 결과 팀원들과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며 팀 과제의 성적도 좋게 나왔습니다.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 간의 어려운 상황이 와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많은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며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습니다.

새로움을 만드는 힘, 상상력

저는 작품에 다양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담는 ‘일러스트레이터’이며, ‘모션 그래픽 디자이너’입니다.

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호기심으로 소재를 항상 찾으러 다니고 사람들이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게 많은 경우의 수를 예민하게 생각해보며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이야기에 새로운 상상을 한 스폰 더하여 이야기를 새롭고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. 앞으로도 새로움을 목표로 끊임없는 상상력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‘일러스트레이터’와 ‘모션 그래픽 디자이너’가 되겠습니다.